

# “토큰증권·가상자산 등 시장변화에 부응… 금융발전 선도”

**이순호 예탁원사장 CEO 간담회**  
KSD 혁신 금융 플랫폼 구축 등  
올해 경영목표 8대 추진과제 발표  
“개인투자용 국제 5년물도 출시  
유동성 증가… 고도화관리 노력”



이순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이 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2025년 상반기 CEO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사업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예탁결제원

“토큰증권과 블록체인 등 새 디지털 기술의 출현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한국예탁결제원의 이순호 사장은 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2025년 상반기 CEO 기자간담회'에서 “토큰증권 시장 출현과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 등 금융시장의 급진적 변화로 인해 중앙예탁결제기관(CSD) 산업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예탁원의 올해 경영 목표를 ‘핵심 금융인프라 경쟁력 강화를 통한 고객가치 창출’로 정하고 8대 중점 추진

과제도 발표했다.

추진 과제는 ▲KSD 혁신 금융 플랫폼 구축 ▲토큰증권 플랫폼 구축 ▲전자주주총회 플랫폼 구축 ▲전자증권 제도 이용 활성화 ▲채권 발행 및 유통

시장 참가자 권리 보호 강화 ▲신증권 결제시스템 2.0 전환 ▲증권 정보 수집·관리 체계 고도화 ▲국제 통합계좌 활성화 및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지원 등이다.

예탁결제원은 현재 토큰증권의 총량 관리 등을 맡는 ‘토큰증권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이 사장은 “작년 도입한 국제통합계좌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령 및 시스템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개인투자용 국제의 중도환매 업무를 원활히 수행해 안정적인 국제 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개인투자용 국제는 20년물, 10년물 이어 올해 5년물까지 나온다. 한국 국제에 투자하는 경우가 늘며 유동성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 맞춰 더 고도화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사장은 이어 “전자증권제도의 이용 활성화와 증권결제시스템 개편, 증권정보 관리 체계 고도화 등 올해의 다른 핵심 사업과제도 잘 수행해 금융시장의 도약을 이끌겠다”고 전했다.

또 AI(인공지능)와 클라우드 등의 주요 혁신 기술의 연구 및 사업화에 힘쓰고, 내부 업무 효율을 높일 차세대 전산 시스템인 ‘KSD 혁신금융플랫폼’의 개발에도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사장은 전자주주총회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국회에서의 상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지만 법 통과를 대비해 출석 확인, 현장 영상 중계, 투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플랫폼(기반 서비스)의 구축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임기 내 꼭 이루고 싶은 성과에 대해 그는 “1차적으로는 예탁결제원 내의 데이터를 잘 활용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기술 기반의 업무 혁신)을 구현하고 싶고, 더 나아가 한국 자본시장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AI 트랜스포메이션을 지원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 금융株 ‘지지부진’… 코리아 밸류업 상승 발목

**코리아 밸류업 지수 전년비 5.73% ↑**  
정치적 불확실성·美 관세에 투심위축  
금융주 약세 속 메리트 상승세 차별화

증시 반등과 기업들의 주주가치 제고 노력에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소폭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주 부진이 이어지며 반등에 힘을 보태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메리트금융지주만 상승세를 유지하며 차별화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리아 밸류업 지수는 종가 기준 1007.55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말 대비 5.73% 상승한 수치로, 올해 들어 국내 증시가 반등세를 보이며 지수 역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한화에어로스페이스(+85.42%), 삼성바이오로직스(+21.31%), 메리트금융지주(+21.59%), HMM(+20.62%) 등이 연초 대비 20% 이상 상승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또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보합세를 유지하며 지수에 안정적인 흐름을 더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주가 전반적으로 약세로 전환되며 코리아 밸류업 지수 상승의 발목을 잡는 모습이다. 금융주는 지난해 증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주환원 여력이 높다는 평가를 받으며 밸류업

정책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최근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과 미국 발 관세 이슈 등으로 인해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금융주들이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은행을 보유한 금융지주들의 하락세가 두드러진다. 금융주 중 밸류업 지수 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KB금융은 계엄일 대비 22.33% 하락했으며, 신한지주(-17.82%), 하나금융지주(-9.85%)도 각각 하락했다. 이에 따라 KB금융의 시가총액 순위는 8위에서 10위로, 신한지주는 11위에서 16위로 내려갔다.

김지영 교보증권 연구원은 “올해 들어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금융주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메리트금융지주는 금융주 약세 속에서도 상승세를 이어가며 차별화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은행을 보유하지 않은 금융지주사로서의 특성과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이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메리트금융지주는 자사주 매입·소각, 배당 확대 등 적극적인 주주친화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지난해 2조333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해 금융업계에서도 높은 실적을 보였다. 이는 5대 금융지주 중 하나인 농협금융(2조4537억원)과 불과 약 1000억원 차이밖에 나지 않는 수준이다.

시장에서는 메리트금융지주의 중장기 주주환원 정책이 정부의 밸류업 정책과 맞아떨어지면서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실제로 2023년부터 연결순이익의 50%를 주주에게 환원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며 주주친화 정책을 강화해 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증권가에서도 메리트금융지주의 목표주가를 상향하고 있다. 키움증권은 최근 메리트금융지주의 목표주가를 15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임희연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 2년간 손익 부담 요인이었던 해외부동산 관련 수익증권 감액(연간 약 3000억원)이 올해부터 상당 부분 해소되면서 실적 개선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며 일평균 50억원 수준의 자사주 매입 수급을 매력적인 요소로 평가했다.

한편, 메리트금융지주는 밸류업 세계 개편이 시행 되더라도 100% 자사주 소각 원칙과 주주가치 제고 철학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정윤 기자 zelkova@



NH투자증권이 5일 2025년 '사랑의 나눔, 헌혈'을 개최했다. (왼쪽부터) 임철순 NH투자증권 ESG본부장, 윤자중 디지털(Digital)자산관리본부 이사, 정노식 대한적십자사 팀장이 헌혈유공장 '최고명예대장' 수여식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NH투자증권

## NH투자증권, 임직원 110명 헌혈 참여

300회 달성 직원에 헌혈유공장 수여

NH투자증권은 임직원 110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랑의 나눔, 헌혈' 행사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NH투자증권 '사랑의 나눔, 헌혈' 행사는 지난 2015년부터 매년 3회에 걸쳐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이번 헌혈행사에서는 '헌혈 300회'를 달성한 직원에게 대한적십자사에서 헌혈유공장 '최고 명예 대장'을 수여하는 별도의 행사를 진행해 사회공헌에 대한 더욱 뜻 깊은 의미를 나눴다.

'최고 명예 대장'을 수여받은 윤자중 디지털(Digital)자산관리본부 이사는

고등학생인 1982년부터 생명나눔을 실천해 왔다.

윤 이사는 “헌혈활동은 30대 후반부터 적극적으로 시작했으며, 다른 생명을 살리고 건강관리도 하고 일석이조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헌혈 400회를 목표로 건강관리를 꾸준히 할 계획이며, 많은 사람들이 헌혈에 동참해 줬으면 좋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NH투자증권은 2023년에 대한적십자사로부터 혈액사업 유공 표창패를 받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앞으로도 임직원 헌혈행사는 물론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허정윤 기자

## 美 투자비중 늘어… ‘환율 변동성’ 잘 살피야

연은, 뮤추얼펀드 증권투자 특징

국내 증권시장에서 환율에 민감한 미국 투자자금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자금 유출입 모니터링 시 환율 변동성 지표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한은은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BOK이슈노트 ‘최근 미국 뮤추얼펀드 국내 증권투자의 주요 특징 및 시사점’을 발표했다.

뮤추얼 펀드(mutual fund·여러 투자자로부터 돈을 모아 유가증권을 구입하는 전문 경영 펀드)의 국내 증권투자는 2019년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그러나 뮤추얼 펀드 가운데 글로벌 리스크에 민감한 패시브(passive) 자금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패시브 자금이란 코스피나 나스닥 등 시장 지수들을 추종하는 펀드에 투입되는 자금을 말한다. 지난해 3분기 기준 미국

뮤추얼펀드의 국내 증권투자 잔액 중 절반이상은 패시브 자금이다.

보고서는 이들 자금이 투자를 환 변동에 노출시키는 ‘환 오픈’ 형태 위주로 글로벌 환율 변동성에 상당히 민감하다고 덧붙였다. 자금 유출입 모니터링 시 환율 변동성 지표에도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보고서는 올해 우리나라의 WGBI 편입은 이 같은 우려를 낮출 것으로 기대했다. 외화 자금 시장의 수급 불균형 완화, 국고채 금리 하락 등에 기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

## ‘삼성한국형TDF2050’ 3년 수익률 42.6%

삼성운용, 평균수익률 22.9% 앞서

삼성자산운용은 회사의 대표 생애주기 펀드 ‘삼성한국형TDF2050(UH)’가 3년 수익률 42.6%를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전체 TDF 2050 빈티지 평균 수익률 22.9%를 크게 앞선 성과이다.

타깃데이트펀드(TDF)는 근로자 은퇴 시점에 맞춰 투자 비중을 조절해 운용하는 ‘생애주기 펀드’로, 은퇴 시점을 2050년으로 설정한 근로자들을 위한 펀

드에는 ‘2050’이라는 숫자가 붙는다.

시기에 맞게 주식과 채권의 투자 비중을 알아서 조정해 주기 때문에 쉽고 편하게 은퇴를 준비하려는 고객들에게 인기가 있는 상품이다.

특히 디폴트옵션 도입 이후 TDF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내 TDF 시장은 지난해 말 16조5000억원에서 지난달 말 기준 순자산 17조8000억원 규모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원관희 기자